

# 일부 도시지역 노인의 건강요구와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

대한 간호, Vol. 17, No. 1, pp. 61~71, 1978.

이 인 규

1977. 5. 3~5. 30사이에 강원도 원주시내 일부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22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노후생활 및 기본요구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.

1) 노후생활에 대하여 노인들이 자식에게 도움을 바라는 의사는 54.1%로 매우 높았다. 이러한 양상은 현재 친족세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또는 결혼한 자식과 동거를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.

2) 노후생활의 책임은 「가족책임이다」와 「본인책임이다」는 거의 비슷한 40% 내외로 나타났다.

3) 노후경제 의식은 45.5%가 동거자식에 의존하겠다고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극적인 경제관념이 확립되어 있음이 현저했다.

4) 220명의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「별다른 지장이 없다」고 답변한 정도는 청력 및 소화기능이 58.6% 및 56.8%로 비교적 그 장애도가 가장 적었고, 다음이 거동상태, 치아기능, 시력상태의 순으로 각각 34.1%, 29.5%, 13.2%로 나타났는데, 이러한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의 호소는 고령에 이룰수록,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다.

5) 주로 친족세대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 노인들이 가장 많았고 아들은 17.3%, 다음이 친구, 딸, 친척등의 순이었다. 자식의 공경정도에 만족하는 경우는 핵가족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제일높아 58.3%였으며 양노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가장 낮아 28.1%였다. 한편 현재의 생활에 대하여는 52.8%만이 만족한다고 했으며, 연령별로나 종교적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

6) 취업에 대한 의사는 32.8% 및 25.9% 노인이 「일하겠다」 또는 「일하고 싶다」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, 취미의 경향이 독서등 정적인 것보다 꽃나무 재배 등 다소 동적인 일면이 있는 취미를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.